

지역 소식 통

고창군, 2024년 교통문화
지수 · 개선 '우수' 수상

전북 고창군이 지난 23일 경북 상주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및 개선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지자체간 운전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총 18개 항목을 조사하여 지자체별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평가하여 공표하는 지수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에서 전북 1위, 전국(군단위) 2위로 선정됐다.

실제 고창군은 지난해 음주운전금지 준수를 조사에서 100%를 기록하며 수준 높은 교통안전의식을 뽐냈다.

또한, 방한지시등 점등률(97.4%),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기계 순회수리
안전 교육 농촌 불편 해소

정읍시가 농기계 수리가 어려운 농촌 마을을 찾아가 순회 점검과 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안전을 높이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과 합동으로 복면 보림리 하우마을을 찾아가 농기계 순회 점검 및 수리,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등 소형 농기계 50여 대를 점검·수리하고, 농업인들에게 자가 정비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장 원인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3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은 시가 무상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었고 현장에서 직접 수리를 진행해 고장으로 인한 불편도 즉시 해소됐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중심 안전교육도 병행해, 참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관할권 회복 법적 대응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유감 표명...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 외면"

부안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결정이 현재 새만금 개발 계획의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던 방식은 이미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남북 2축 도로 중심의 권역 체계로 전환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또 군은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속의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우선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임에도 국가 정책이 꾸준히 협조하면서

함께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변도시 매립지는 약 660만㎡ 규모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거점이자 미래 산업·주거 복합기능을 담당할 핵심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은 향후 개발 성과를 좌우할 중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개관 준비 착수

고창군이 고창읍성 서문(진서루) 앞 6동의 한옥건물인 '전통예술체험마을'의 개관 준비에 착수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고창읍 서문2길 14번지 일원)에서 운영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열었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위원회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7명의 위촉직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2년간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은 고창읍성 서문에 조성된 한옥마을이다. 고창

군의 다양한 무형유산과 전통예술 등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 문화 집적공간이다.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각종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5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공예주간' 행사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전통예술체험마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첫 걸음을 함께 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양식장 수산물 의약품 지도·점검

정읍시가 양식장 대상 수산물 동물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나섰다.

시는 24일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와 합동으로 지역 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양식장 20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는 수산물 의약품의 사용여부, 유효기간 준수, 보관 상태 등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사용이 금지됐거나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현장에서는 단속과 함께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의약품 10대 사용 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승인 수산물 의약품의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업·관광 어우러진 정읍으로" ... 현안사업 현장 행보

이학수 정읍시장, 스마트 축사부터 유채꽃 경관·자연휴양림까지

이학수 정읍시장이 농축산업과 관광 자원의 발전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며, '버무는 정읍'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 전략사업 현장 찾아가 주

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정읍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첫 방문지인 '피그월드'는 총 130여 명이 투입된 스마트 양돈단지로 ICT 기반의 약취 저장·질병 예방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미래형 축산시설이다. 이 시장은 "미래 농업의 핵심은 기술과 환경"이라며 "피그월드는 정읍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신대인·이평면 동진강변 일대의 반석보터 유채꽃 경관농업 조성지에서는 봄꽃이 활짝 핀 경관을 살펴며 농촌형 관광 자원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농업은 생산을 넘어 경관과 문화, 관광과 연계돼야 한다"며 "주민 주도의 경관농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찾은 내장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웰파크시티, 업무협약

고창군은 24일 오전 고창웰파크시티(대표 이종균)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을 찾은 전지훈련단과 체육행사, 자매도시 시·군·구 이용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대혜택 대상은 전지훈련·체육대회로 고창을 방문하는 체육단체와 자매도시 시·군·구민(서울 관악·성북·송파·마포 부산 동래, 경북 상주·고령, 광주 남구, 강원 정선)을 포함해 고창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초청되어 참여하는 기관 등이다.

웰파크호텔&스파 할인혜택은 비수

기, 성수기 극성수기로 구분하고 이용인원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스탠다드 트윈기준 정상이 28만원의 객실을 비수기 30일 이상 9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동계(비수기) 전지훈련 및 3일 이상 개최되는 전국대회로 고창을 찾는 대규모 체육단체와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을 제공하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웰파크시티는 고창을 석정리·월암리·월산리 일원에 조성된 국내 최대 복합 힐링 단지로 관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리조트로 고창 지역과 함께 상생해 나가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정온천휴스파,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석정웰파크병원 등으로 고창의 품격을 올리는 고창 웰파크시티 이종균 대표이사에 감사드리며 웰파크호텔의 오픈을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현장의정활동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부터 부안읍을 시작으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농어촌버스터미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준비 현장 푸드엔터테인먼트 조성사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및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사업의 테마와 체험 요소, 상징성 등이 부족



한 점을 지적, 사업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청년들의 문화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12회 부안마실축제'의 주무대가 될 해탈마루 현장에서는 △먹거리 부스의 운영 및 배관시설의 철저한 준비 △일일적인 시설이 아닌 영구적인 시설 설치 고려 △보행로의 안전성과 통행 동선의 효율성 확보 등을 주문하며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